보즈워스 특사 '방북 딜레마'

7~10일 방한…유명환 장관 등과 면담
北 미사일 발사 제지 장담 못해 고심

중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가 일본을 거쳐 오는 7~10일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

보즈워스 특사는 주말에는 과거 주한대사 시절 친분이 있던 인사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청와대 인사 등과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또 방한 기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숙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신임 본부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즈워스 특사의 방한 등 북핵 외교가의 긴박한 움직임을 감안, 이날 위성락 외교장관 특별보좌관을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가능성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보즈워스 특사의 동북아 순방 일정 중에 현재까지 북한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그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방북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도, 그렇다고 방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사가 방북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은 그의 방북이 미사일 정국과 맞물려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방북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그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 후 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는 외교 소식통의 발언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 보즈워스 특사는 당연히 방북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보즈워스 특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방북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강경 일변도다.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즈워스 특사는 당초 3월 중하순께 나 동북아를 순방할 계획이었지만 미사일 정국의 시급함을 인정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그의 조기 순방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호주 해변 고래 떼죽음

2일 호주 타즈매니아의 킹 아일랜드 해안가에 194마리의 파일럿 고래와 6~7마리의 청백돌고래가 모래 위로 올라와 고립됐다.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이 고래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많은 고래들이 죽었다. /연합뉴스

北-유엔司, 판문점서 장성급회담

북 제의로 6년 6개월만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2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했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렸다"면서 "회담은 북한군 측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회담을 제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이 장성급회담의 재개를 요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를 수락했다면서 "장성급회담은 양측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달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는 유엔사 측에서 조니 와이더(공군소장) 유엔사 부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으나 북측 수석대표의 이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회담이 종료되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유엔사가 회담한 것은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

"北, 면밀히 관찰중"

美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장거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동태를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멀린 의장은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관해서는 자신이나 게이츠 국방장관이 특별히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바탕으로 삼아 조언이나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엔 간디 유품 경매…인도인들 화났다

안경·회중시계 등…청 유물 낙찰자 "돈 못준다"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궁인 원명원(圓明園)에서 약탈 당한 문화재를 경매해 중국인들의 공분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유품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인도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반발에도 미국 뉴욕 소재 경매회사인 안티쿼럼은 예정대로 오는 5일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티쿼럼 대변인은 AFP 통신에 "경매가 오는 5일 진행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경매에 부칠 물품은 둥근 테 안경과 회중시계, 가죽 샌들, 접시, 그릇 등 간디의 개인 유품 5점.

경매업체 측은 간디의 유품을 한 세트로 판매할 예정이며 낙찰가가 2만~3만달러(약 3천만~4천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청나라 원명원 문화재 2점을 지난주 프랑스에서 낙찰받은 중국인 수집상은 크리스티 경매에 나온 쥐머리와 토끼머리 청동상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1860년 약탈한 것이라면서 이 문화재를 위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뉴셴펑 중국해외문물환수전용기금 부총간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원명원 청동상을 낙찰받은 사람은 샤먼에서 수집상을 하는 차이밍차오"라고 밝히면서 "차이밍차오는 중국해외문물환수전용기금 수집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 부총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차이밍차오는 "나는 중국인을 대표해서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낙찰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 티베트 여행 경보

여행제한으로 격상

외교통상부가 중국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에 긴장이 고조되고 치안 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티베트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여행제한'으로 격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행제한은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라는 내용의 여행 3단계 경보이며, 마지막 4단계는 방문금지와 즉시 대피 및 철수의 바로 전 단계다. /연합뉴스